



제 5 회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 성료

제 5 회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6.2 ~ 6.3 제주도 서귀포 KAL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의 관광명소인 제주도의 정취를 안고 개최된 금번 집담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유수의 대학 및 유관기관, 산업보건관계자, 정부관계자 등 한국측 86명, 일본측 36명, 총 122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동 학술집담회 기간동안에 양국 운영위원회와 총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학술집담회 개최 전날인 6.1 저녁 집담회 참석을 위해 제주도에 도착한 양국 참가자들은 당 협회에서 마련한 전야 소연회에서 상견례를 하고 다음날인 6.2 09:00 부터 조규상 한국측 대표위원(당 협회 회장)과 齊藤 一 일본측 대표위원(일본 노동과학연구소 고문)의 인사말에 이어 연구발표에 들어갔다.

1 제당 발표시간은 20 분, 연자의 발표후 참석자들로 부터의 질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6.2일에는 제 1 부 직업병의 새로운 지견이 8제, 제 2 부 특별강연이 3제, 제 3 부의 환경관리의 새로운 지견 8제가 각각 발표되었고, 6.3일에는 제 4 부 심포지움, 산업의 의무와 교육을 주제로 5제의 연제발표를 마치고 종합적인 자유 토론시간을 갖은 후 동 집담회 한국측 간사인 이승한 박사(가톨릭의대 교수)의 폐회사와 참석자 기념사진촬영을 끝으로 금번 학술집담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동 집담회에서는 특별히 전 WHO 산업보건 국장이자 현재 N.Y. Osteopathic 의과대학에

재직중인 M.A. El Batawi 박사가 직업관련성 질환의 조기발견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여 동 학술집담회의 발전을 축하해 주었으며, 또한 동 집담회 개최의 축하와 격려를 위해 참석한 노동부 윤석춘 산업안전국장은 6.2 저녁 만찬회 자리를 빌어 동 학술집담회가 해를 거듭할 수록 점차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은 양국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임을 높이 평가하면서 새로운 산업보건 지식의 습득과 기술개발에 더욱 큰 성과를 거두는 학술집담회로 발전되기를 기원하였다.

특별히 금번 집담회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1984년 동 집담회가 양국 산업보건 전문가들의 우호적인 학술교류단체로서 결성되어 매 1년마다 한·일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어 오는 동안 초년도에 비해 산업보건 연구과제가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깊은 연구관찰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될 만하며, 더욱이 금번 집담회에는 예년에 비해 국내 연구자 및 관계자들의 참석율이 상당히 높았던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 국내 산업보건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 동 학술집담회의 연제 발표시에는 공통사용언어인 영어로 발표케 되어 있었으나 일본측 참가자들이 자국어로 함으로써 국내 참가자들에게 다소 경청하는데 불편함을 주어 이는 점차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제 6 회 한일집담회, 일본 구주에서 개최기로

지난 6.2 ~ 6.3일 한일집담회 기간중 양국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제 6회 차기 집담회 일정을 협의하고 '90.4.6 ~ 4.7 일본 구주에서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최영태 박사 방한 동정

초대 대한산업보건협회장(1962 ~ 1980)을 역임하신 최영태 박사께서 협회 초청으로 지난 5.26 입국하여 국내 산업보건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6.10 거주지인 뉴욕으로 귀국하였다.

최 박사는 체류기간동안 한일학술집담회 참가, 협회 지부 순방(서울, 전주, 부산, 마산) 노동부 방문, 고향성묘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다.

유기용제 중독예방 홍보물 배부

특기협은 사업장에서의 유기용제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유기용제 중독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물 50,000 부를 제작, 전국 유기용제 제조 취급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모두 배부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 유기용제 중독 예방대책 홍보물을 시발로 하여 수은, 연, 크롬, 진폐, 소음, 망간 등 유해인자별로 근로자들이 알기쉽게 이해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리즈물로 제작, 근로자들에게

배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펴기로 하였다.

협회, 중앙분석실험실 완공

중앙분석실험실 설치를 위한 증축공사가 약 2개월만인 지난 6.15 완공되어 내부설비를 마치고 외국에 발주되었던 각종 분석기장비가 도착되어 시험가동을 위해 한창 준비중에 있다.

협회는 시험가동이 끝나는대로 7월초개원식을 갖을 예정이다.

협회, 최영태 박사, 사이토 박사에게 감사패 수여

조규상 회장은 지난 6.2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 개최식에서 그간 양국의 산업보건 발전과 우의증진에 기여한 최영태 박사와 사이토 박사(일본측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두 분은 금년 80 고령으로 동갑이기도 하다.

노동부, 전국 사업장 현황 센서스 실시 계획

노동부는 오는 7.10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의 정확한 사업장 현황과약을 위한 센서스를 실시기로 하였다. 금번에 실시될 전국 사업장 현황 센서스는 전국 대학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의 지원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제 12 회 경남직장대항 탁구선수권 대회에서 마산산업보건센타 전종목 종합우승.

지난 5월 27 ~ 28일 마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던 경남탁구협회 주최 회장기 쟁탈 제 12회 직장대항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당 협회 마산산업보건센타가 단체전, 개인단식, 개인복식 전종목의 종합우승 및 개인단식 3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는 종목별로 단체전, 개인단식, 개인복식으로 나누어 경상남도 내 62개 직장, 94개팀의 200여명이 출전하였으며 마산산업보건센타에서는 동 탁구대회에 두번째 참가하는 대회로서 관리과의 박인국, 노상훈, 산업위생과의 조길석이 단체전을 비롯한 전종목에 출전하여